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5년 6월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등

1. 시작 성가: 199번(예수 마음)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요한 19,28-37**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치자.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201번(은총의 샘)

MEMO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서론

1.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vivit). 이러한 진리는 일상적인 신앙 경험을 표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비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하신 약속의 항구한 성취를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쁘게 체험하지만, 특히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이러한 현존을 매우 강렬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새 계약의 백성인 교회가 천상 본향을 향한 순례 여정을 시작한 오순절 이후, 이 거룩한 성사는 교회가 지내 온 세월을 끊임없이 기념하며, 그 시간들을 확고한 희망으로 채워 주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체성사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¹⁾이라고 올바르게 선포하였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교회의 모든 영적 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의 ‘파스카’ 이시며, 살아 있는 빵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주는 당신 살로써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눈길은 언제나 제대의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향하며, 그 안에서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온전히 드러남을 발견합니다.

2. 2000년 대회년 중에 저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성찬례를 거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친히 처음으로 성찬례를 거행하신 곳입니다. 다락방은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가 제정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들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마태 26,26; 루가 22,19; 1고린 11,24 참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마르 14,24; 루가 22,20; 1고린 11,25 참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00년 전에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되풀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후의 만찬에 참석하였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성목요일 저녁에서 부활 아침에 이르는 성삼일 끝에 가서야 온전히 밝혀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삼일은 파스카 신비를 품고 있으며, 또한 성체성사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3. 교회는 파스카 신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파스카 신비의 뛰어난 성사인 성체성사는 교회 생활의 중심에서 있습니다. 이는 이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 2,42).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은 성찬례를 뜻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교회의 이러한 첫 모습을 끊임 없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파스카 성삼일로, 곧 성목요일 저녁의 사건들, 최후의 만찬과 그 이후의 일들로 되돌아갑니다. 성체성사의 제정은 계제마니 동산의 고뇌를 시작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성사적으로 앞당깁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다락방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서 올리브 동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지금도 그 동산에는 매우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나무들은 그날 그리스도께서 고통 중에 기도하시며 “땀방울 같은 땀이 뚝뚝 흘러 땅에 떨어졌을 때”(루가 22,44)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전에 성체성사를 통하여 교회에 구원의 음료로 주신 그 피가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피 흘림은 해골산에서 우리 구원의 도구가 됨으로써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셔서 ……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 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히브 9,11-12).

*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내용은 요한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해방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14절에서 보듯 해방절 식사에 쓰일 어린 양들이 성전 안에서 도살되는 해방절 전날 정오 무렵에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두 죄수와 달리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보도는 예수님이 해방절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물로 바쳐졌음을 의미합니다.(출애 12, 46 참조)

* 병사 하나가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로마 병사에게 있어서는 이 행위가 단순히 사람의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사가에게 있어서는 그 속에 훨씬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가르치는 유다의 희생제사 법규에 따르면 희생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의 피가 살 속에서 응고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제물의 심장을 찢러 피가 빨리 그리고 완전히 몸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행위 즉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곧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34절)라고 기록합니다. 이 보도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① 예수님께서서는 한 인간으로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관한 보도라 볼 수 있습니다.
- ② 예수께서 모든 희생제물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빠스카 양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개념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희생제물로서의 예수에 대한 개념을 한데 묶고 있는 것이다.**
- ③ 창에 찢린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성서말씀을 상징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7,38-39). 물은 성령의 표상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비단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얻어진 결실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어진 결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내려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④ 또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에 관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은 세례성사를, 피는 성체성사를 상징합니다.**
- ⑤ 이 물과 피가 돌아가신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성사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나눔:

순교의 찬란한 영광이 아닌 평범한 자연사와 병사는 피 흘리는 순교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우리도 삶 안에서 주님께 바치는 고통으로 똑같이 순교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순교는 그것이 한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피 흘리는 것이기에 그리고 남이 항상 알아주는 것도 아니기에 그 가치는 지극히 큰 것이다. 피 흘리는 순교의 영광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내적인 순교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지닌 주님께 대한 큰 사랑과 알려지지 않게 실천하는 겸손, 그것은 교회의 공적 지도자들과 교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요, 세상을 정화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 진정한 사랑 ♥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해를 입혀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해를 입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나를 반성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 용서를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유 없이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미워하고 해를 입힌 사람들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미워한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면
미워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미움, 증오와 사랑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랑을 감싸줄 수 없지만
사랑은 미움을 감싸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미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 이형호 신부님 -

♡ 사랑하는 까닭 ♡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흥안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 한 용운 -

사랑에 타오르는 예수성심!
저희 마음을 당신 사랑의 불로 태우소서.

